

서울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지척에 두고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많으면서도 잘 가계되지 않는 곳이 있다. 탑골공원도 그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탑골공원을 찾게 되었다. 외국인을 대동하고 국보2호로 지정된 원각사 13층탑 앞에 섰을 때 역시 잘 왔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어렸을 때의 추억이 되살아났다.

8.15해방후의 어느날, 국민학교학생들이었던 동네꼬마들이 탑골공원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날은 일제가 배어내어 팽개쳐 두었던 13층탑의 맨 윗부분 3층을 해방후 진주한 미군이 찾아내어 복원을 하는 날 이었다. 그복원 광경이 큰 구경거리가 되겠기에 동네 꼬마들이 달려갔던 것이다.

그런데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지켜보는 꼬마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지게 복원작업은 너무 쉽게 끝나버린 것이다. 일제시 형벌되는 중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근로봉사라는 미명아래 삽과 곡괭이만으로 비행장도 닦고 길도 내고 하던 것만 보아왔던 꼬마들의 생각으로는 13층탑의 복원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리라 예상했던 것이다.

즉, 탑의 10층 높이까지 탑주위에 흙을 쌓은 다음 떨어져 있던 나머지 3층을 그 꼭대기로 조심스럽게 운반하여 올려 놓고 다시 탑주위의 흙을 파서 제거함으로써 제모양을 갖출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런데 미군들은 현장에 기중기 한 대를 갖다 놓은 후 3층부분을 가볍게 들어 올려 10층 위에다 사뿐히 내려놓는 것으로 일을 단 5분내에 마무리 지어버렸다.

이 광경을 목격한 우리 꼬마들의 뇌리에는 그때 「과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그리고 일제가 왜 태평양전쟁에서 패하였는가 하는 이유가 자명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삽과 삽태기로 오랜 시간에 걸쳐 흙을 쌓고 다시 파고 하여야 되는 노력을 기중기라는

기계가 순식간에 대신해버린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과학발달의 역사는 인간을 괴로운 육체노동으로 부터 풀려나게 만든 노예해방의 기록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결부되어 일제시 국민학교 시설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또 한가지 생각나는게 있다. 당시에는 너 나 할 것 없이 위생상태가 엉망이었고 따라서 옷에 이가 많았었다. 그리고 이가 전파하는 무서운 전염병인 발진티프스가 창궐하였었고 특히 일본군에서 환자발생이 많았던 듯하다. 이런 상황은 미군에서도 마찬가지 였을

과학자들이여 체통을...

李 純 炯
(서울大 醫大교수)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이를 잡을 수는 없었을 터이니까. 그래서 발진티프스라는 전염병을 퇴치하는 쪽이 전쟁에서 이긴다 할 정도였다.

일제는 그 퇴치방법으로 발진티프스 예방접종을 개발하려 하였다. 따라서 국민학교 어린이들로 하여금 쉬는 시간에 이를 잡아내게 하였다. 일제히 웃옷을 벗고 교실에서 이를 잡는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우스꽝스럽고 부끄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때만은 평소에 공부도 못하고 몸에 때도 많아 늘 벌만 서던 아이가 이

를 제일 많이 잡아내어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잡아 모은 이를 작은 유리병에 담아 위생당국에 제출하였었다. 결국 이것은 발진티프스의 예방접종약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일제가 이렇듯 어렵게 이를 잡아 예방접종약을 만드는 사이, 미국은 그 유명한 DDT를 개발하여 이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발진티프스 및 그 매개체인 이를 동시에 퇴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DDT는 모기를 죽이는 데도 탁효가 있어 열대지방의 전쟁터에서 승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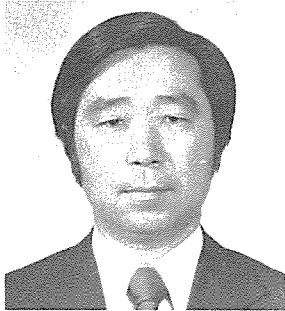
양심, 현명함이 무엇보다도 결정적 요인이 된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과학문명을 아무런 비판 없이 모방하여 근대화를 서두르던 아프리카의 한 개발도상국에서의 실패담은 좋은 교훈이 된바 있는데, 우리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다른 나라로부터 큰 빛을 내어 발전과 관개를 겸한 다목적 「댐」을 건설하였는데 그 결과 생태계의 변화로 주혈흡충병과 회선 사상충병이 널리 퍼지고 말았다. 주혈흡충병은 우리나라의 간디스토마증과 비슷한 병으로 감염되면 종구에 간경변증으로 사망하게 되며 또 회선사상충병은 실명을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식량을 증산하여도 많은 감염자들이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 못하며 또 아무리 발전량이 늘어나도 실명으로 밝은 불빛을 보지 못할 때 「댐」 건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재 「과학의 힘」은 그 어느때 보다도 가속적으로 커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학자들의 생각과 조심성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방사능의 발견이 핵무기 확산으로 둔갑하게 되는 부작용을 발견 당시의 과학자들이 예측할 수 없었듯이, 공룡처럼 거대해지는 20세기 과학발달의 뒤편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다만 이런 때 일수록 과학자들이 차분하고 사심없는 마음가짐으로 현명하게 행동하여야 될 줄 믿는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정책연수과제라 하면 유행에 따라 사이비 전공자들까지 몰려들어 성시를 이루는가 하면, 심지어 어떤 특정단체에서 내는 저녁을 얻어 먹으려고 수천명이 몰려와 호텔의 접시가 동이 났다는 후문도 있다.

무릇 이땅의 과학자들은 냉수 마시고도 이를 쭈시던 옛 선비들의 향심을 본받아 제발 체통 좀 지켰으면 한다.



를 가늠하던 전염병인 말라리아를 관리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여기서 「과학의 힘」이 인간을 육체 노동에서 뿐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해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과학의 힘」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방법의 선택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복이나 인류의 복지를 위해 「과학의 힘」을 이용할 때 그 목표의 선정이라든가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과학자의 건전한 철학,